

2015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공공기관에서 관리중인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진화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구주택총조사가 무엇인가요?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총수는 물론 규모, 분포 및 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전 과정입니다.

“나라 살림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
종합적인 통계자료입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이렇게 활용돼요!

인구주택총조사는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본 통계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조사로 평가됩니다. '2010 라운드'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곳은 235개 국가 중 94%인 221개국으로, 인구센서스 계획이 없는 나라는 14개국에 불과합니다. (출처 : UNSD)

** 인구센서스 2010 라운드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지는 인구센서스를 아우르는 말.



국가정책의 기초자료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수립 (시도)

민간기관, 일반국민 활용

- 기업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 즉석밥, 순한소주 등
-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분석
- 자료이용건수 : 120만 건 ('14년)



2차 가공통계 작성

- 인구추계, 가구추계 (통계청)
- 출산율, 노령화지수 (보건복지부)
-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등

조사모집단 정보 제공

- 가구단위 통계조사 모집단으로 활용
- 국가승인통계 120여종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 한눈에 살펴보는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개요	2015년
인구총조사	1925년 처음 실시	20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에 해당
주택총조사	1960년 처음 실시	2015년 주택총조사는 제11차에 해당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17조1항(지정통계)	
조사 기준시점	0자 또는 5자로 끝나는 연도 11월1일 0시	2015.11.1. 0시 기준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거처 	

Tip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를 하나로 합친 고유명칭.
총조사 : 영어 census(센서스)의 우리말로 전국 규모의 조사를 뜻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요!

- **2010년까지** –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015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11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등록센서스를 도입합니다”

➔ 등록센서스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요!

-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 기본적인 총조사 전수항목은 현장조사 없이 11개 기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관리중인 21종의 공공데이터(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를 서로 연계·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합니다.
- **현장조사 병행** : 단,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표본항목에 대해서 **20%** 가구표본을 대상으로 기존과 같은 방식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Tip

전수조사 (complete enumeration, 全數調査) : 통계조사에서 모집단(母集團)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
 모집단 내의 일부분만을 조사하여 전체를 추정하는 표본조사(sampling survey)와 대비되는 조사.

등록센서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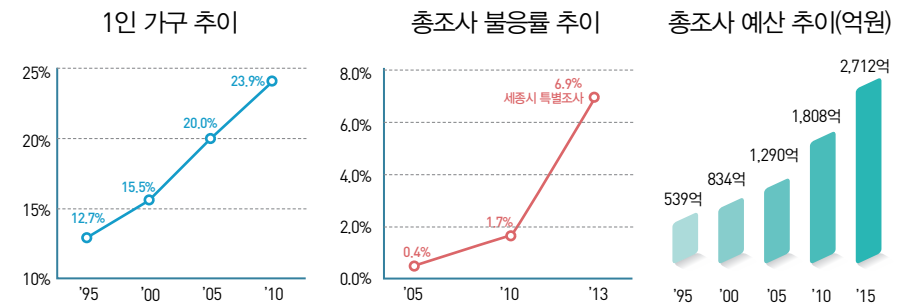
“아하! 현장조사를 대신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군요~!”



➔ 등록센서스, 도입한 이유가 궁금해요!

(현장조사 환경의 변화 조사비용의 증대 선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록센서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조사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응답자가 부재 중이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현장조사로 인해 비용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공공데이터의 전산화로 통계작성 및 활용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부처 간 공공데이터의 공유·협력을 기반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등록센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된 공공데이터들로
통계의 품질을 높입니다!”

➔ 등록센서스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생산됩니다.



어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나요?

2015년 등록센서스 생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등 11개 기관 21종의 자료를 입수 및 연계하여 활용합니다.

“인구·가구·주택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21종이 이용됩니다”

2015년 등록센서스에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목록 정부 3.0

부문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이용 목적
인구 · 가구	주민등록부	행정자치부	인구·가구 모집단 생성
	외국인등록부	법무부	인구(외국인) 모집단 생성
	재외국민거소신고자 명부		인구 보완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명부		인구(외국인) 보완
	불법체류자(단기체류자격)명부		인구(외국인) 모집단 생성
	출입국 자료		인구(해외거주자) 보완
	교정시설 수용자 명부		가구 보완
	소년원 원생 명부		가구 보완
	사회시설명부	보건복지부	인구, 집단가구 보완
	군인(사병) 명부	국방부	가구 보완
	해외주재 공관원 명부	외교부	인구, 가구 보완
	학적부(대학)	교육부/각 대학	인구(실거주제), 가구 보완
	기숙시설(대학) 이용자 명부		인구, 집단가구 보완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가구 보완
주택	의무경찰 명부	경찰청	가구 보완
	의무해양경찰 명부	국민안전처	가구 보완
	의무소방대원 명부		가구 보완
	도로명주소(국가기초구역)자료	행정자치부	거처 모집단 생성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주택 보완
	주택공시가격자료		주택 모집단 생성
	전기시설(주택용) 자료	한국전력공사	주택(거주기능가구수) 보완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내 정보는 안전한가요?

등록센서스를 위해 사용되는 공공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료 간 연계를 위하여 가상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가상번호를 사용하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고효율, 저비용의 정확하고 편리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응답에 대한 부담감 최소화

기존에는 전 국민이 조사에 참여했지만 등록센서스가 도입되면 현장조사 없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만 국민의 20%를 표본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활용가치 높은 정보를 매년 제공

기존에는 5년 주기의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센서스 실시로 매년 갱신된 인구·가구·주택 통계 결과와 모집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예산절감 효과

기존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 약 2,700억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나, 2015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면 약 1,400억원 절감되어 1,3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현장조사도 실시하나요?

공공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는 전국 가구 가운데 20%를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전국 가구의 20%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요~!”



➔ 현장조사, 표본조사와 시설조사가 함께 진행돼요!

| 표본조사 |

| 시설조사 |

목적	공공데이터로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 - 조사항목 : 아동보육, 경제활동 상태, 통근·통학 등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장조사
대상	전국 가구의 20%	기숙사, 요양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조사 기간	2015.11.1~11.15 (인터넷조사 : 10.24~10.31)	2015.11.1~11.15 (인터넷조사 : 10.24~10.31)
조사 방법	인터넷조사,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방문면접조사

다른 나라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나요?

2010년 전후로 공공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국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활용 센서스 실시 국가 현황

2000라운드
(11개국)

덴마크, 핀란드, 안도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2010라운드
(25개국)

덴마크, 핀란드, 안도라,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대만, 독일, 스페인, 폴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터키,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출처 : UNSD보고서(2011. 7.)



2015 등록센서스 도입,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등록센서스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등록지와 거주지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아직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Tip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 (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 첫 번째 등록센서스가 2015년
11월에 실시됩니다.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은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21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015년에 도입하는 등록센서스를 통해
1,4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약 2,700억
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나, 등록센서스는
약 1,3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20% 표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
합니다. 이는 공공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과의 행복한 동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새로운 변화!
「등록센서스」실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www.census.go.kr

통계청
STATISTICS KOREA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등록센서스과 ☎ 042.481.3653